##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 세계불교 법왕청이 동네 북인가







미얀마 종교성장관과 불교수호협회 주관하에 각국 승왕 및 지도자 회의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개원

왜 세계불교법왕청의 명칭을 도용하며 남의 명칭을 도용하는가?

그러면서도 왜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참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자중해야할 스님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에서는 정치를 멀리합니다. 시국선언을 한적도 없고 법왕, 승왕 임명장 내린 적도 없습니다.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법왕과 승왕은 세계 각국 불교협회나 각국대표자들이 추대하는 법왕과 승왕이 진정 법왕이고 승왕이지, 동네 모임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스님들 초대하여 앉혀 놓고 스스로 자기가 법왕이요 승왕이라네요 그리고는 세계가 인정하는 법왕, 승왕이래요.

한국불교의 기둥인 모 종단의 종정예하에게도 감히 법왕, 승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데, 너도 나도 법왕이니 승왕이니 한국에는 왜이렇게 법왕과 승왕이 많은가.. 참으로 자랑스러워 해야 하나요? 부끄러워야 해야 하나요? 누가 알아주는 명칭인가요? 남의 명칭을 허락도 없이 도용하여 현판식하고 각료 임명장 주는 한국불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현상입니다.

이후 각종 법왕, 승왕이 난무하다보니 자신들이 세계인의 존경은커녕 한국불교계에서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위치에서도 알아주는 이 없는 독불장군식이거나 나홀로 법왕, 승왕이 넘쳐나 한국에서 50여명이 법왕, 법황 등과 승왕이라는 명칭에 대승정까지 부끄러움 없이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현상은 한국 불교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8 승려(승왕단)도 있다네요. 이들끼리 인정하고있는 법왕, 승왕, 승왕단이 공식대표에게서 인정받은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전무할 것입니다. 만약 받았다면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문자로 경고한 봐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명칭을 도용한 세계불교법왕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승왕 범만스님, 일광스님, 108승려(승왕)이라 지칭한 스님들 신문지상에 공개해명을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이번만은 자칭 108 승왕들의 명단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팔십을 바라보는 노승은 타종교의 교황청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느끼는 바가 커, 승려로서의 자존심과 불교의 위상에 밑거름이 되고자 생에 마지막 회향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 각 나라 불교계 대표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갔습니다. 환대와 냉대, 거절 속에서도 참아내며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한국땅 스님들의 무관심과 시기, 질투, 방해, 모략을 온 몸에 받으며 눈물로 10여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법왕청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을 지칭하고, 법왕, 승왕이라고 지칭하는 스님들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통찰하시고 제발 명칭 도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일불 제자로 사회법으로 다투는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 자중하며 편치 않은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법왕
(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책임 비서 대승정 목탁 합장






##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제붓다 평화봉사단

**- 국내 외 활동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창단 된 국제붓다 평화봉사단이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흘려 봉사해 온지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성불자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인간방생의 도반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본부 02-733-5665**